

일 주 문



생명나눔실천본부 생명나눔 떡 나누기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은 안국역에서 2월 11일 장기기증희망 안내소 개원 1주년 및 설맞이 생명나눔 떡나누기를 진행했다. (02)734-8050



능인학원 제 70회 졸업식 능인학원 이사장 종광 스님은 2월 9일 능인고등학교 대강당에서 능인학원 제 70회 졸업식을 개최했다.



고운사 구제역 가축 천도제 의성 고운사 주지 호성 스님은 1월 31일 분말사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제역 희생 가축 천도제를 봉행했다.



탄허대종사 99주기 탄신다례제 평창 월정사 주지 정법 스님은 2월 17일 월정사 적광전에서 탄허대종사 99주기 탄신다례제를 봉행한다. (033) 339-6621



대구 용궁사 원각 스님, 법무부장관 표창 대한불교서각종총무원 대구 용궁사 총무원장 원각 스님은 구랍 30일 경북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10년 간의 교정 교화 공로로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청릉사 논산훈련소 범당 건립 지정 기탁 서울 청릉사 주지 진우 스님은 2월 9일 논산훈련소 범당건립과 군포교 활성화를 위한 자비나눔 기금 1500만원을 2월 9일 아름다운동행에 지정 기탁했다.



연우와함께, 민족문화수호기금 전달 이상근 연우와함께 대표는 2월 7일 조계종 총무원에 설맞이 상품 판매 수익의 5%인 1000만원을 민족문화수호기금으로 전달했다.



포교사단 좋은인연 정기총회 인희웅 포교사단장은 2월 14일 서울 포교사단 교육관에서 좋은인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인사〉 조계종 사서실장 심경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2월 11일 사서실장으로 심경 스님을 임명했다. 심경 스님은 정부 스님을 은사로 1969년 용화사에서 영신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수지했다. 범립사 주지, 만기사 주지, 반야사 주지, 영월암 주지, 총무원 재무부장, 총무원 사서실장을 역임했다. 노덕현 기자

석굴암 복원했던 한국 미술사학계 큰 별 지다

前 동국대 총장 초우 황 수 영 박사 타계



한국 미술사학계의 거목인 초우(蕉雨) 황수영(黃壽永·93) 박사가 2월 1일 별세했다.

황수영 박사는 한국전쟁 중의 폐허속에서 평생을 미술사학 발전과 문화재 발굴에 헌신해 한국문화 전반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절터에서 출한 문화재를 찾아내고 복원했으며, 또 현재 불교미술을 이끄는 수많은 연구자를 길러내 불교의 문화유산이 황수영 박사를 통해 보존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평가를 받는다.

1918년 태어난 고인은 식민지시대 경북중학교와 일본 마쓰야마(松山)고등학교를 거쳐 1941년 도쿄제국대학 경제학부를 졸업했다. 이곳에서 우현 고유섭(1904~1944) 선생을

만난 고인은 광복 후 한국으로 돌아와 개성상업중학교 교감으로 일했으며, 1847년 국립박물관 박물관을 지내며 미술사학자의 길을 걸었다. 1956년 동국대 교수로 임용돼 박물관장과 대학원장을 거쳐 1982년부터 1986년까지 이 대학 총장을 역임했다.

1959년 서산마애삼존불상을 발견했으며 1962년에는 석굴암 보수공사의 총책임자로서 진두지휘했다. 1966년에는 익산 왕궁리 석탑 발굴, 1967년에는 문무대왕의 해중릉 대왕암 발견 등 수많은 문화재를 발굴해냈다.

황수영 박사가 미술사학에 매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스승에 대한 존경과 그 가르침에서 비롯됐다. 우현 고유섭(高裕燮·1905~1944) 선생으로부터 미술사를 배운 황수영 박사는 1944년 스승의 임종 때 '스승의 뒤를 잇겠다고 맹세했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지난해 타계한 동갑내기 진흥섭 박사, 그리고 최순우(1916~1984) 전 국립박물관장과 같은 북한 개성 출신으로 한 문하로 '개성 3인방'으로 불렸다.

고인의 족적은 단순히 문화재 및 미술사 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문화와 교육 전 분야에 걸쳐 광범위했다. 1962년 문화재위원회 위원을 시작으로 1981년에는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오랫동안 활동했다. 이 기간 한·일 국교정상화회담에서 문화재 반환협상의 실무대표로 활약하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1985년에는 하성문화재단 이사장을 맡아 동국대 총장을 지낸 저명한 역사학자 이선근 박사 추모사업을 벌이기도 했다. 1996년에는 경부고속철도 경주노선 선정에 대한 합동 조사단장을 맡아 경주 외곽노선을 관철시켰다.

고인이 발표한 논문은 400여 편, 저술은 50여 권에 달한다. 대한민국 훈조근정훈장·국민훈장동백장, 5·16 민족상, 자랑스러운 박물관인상 등을 받았으며, 제자로 정영호 단국대 석주선박물관장, 김동현 전 국립문화재연구소장, 이호관 前 국립박물관 미술부장 등이 있다.

고인은 평소 "우리 문화재는 하나 하나가 저마다 사연을 간직하고 있다. 불교미술을 공부하는 사람으로 어찌 현장을 소홀히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영호 단국대 석좌교수는 "선생님께서 항상 강조하신 학문의 정확성과 현장 조사의 중요성은 후학들이 본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02)3410-3151 노덕현 기자

이규택 경서원 대표 지병으로 타계

불자지식인 양성에 앞장 불교계 애도 줄이어



불교출판계의 베틀목이던 이규택 경서원 대표(사진)가 지병으로 2월 4일 타계했다. 발인은 유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2월 8일 을지로 백범원에서 진행됐다.

1965년부터 출판일을 시작한 이 대표는 1978년부터 30년 이상 현 견지동 55-2번지를 지켜왔다. 조계사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5-6평 규모의 경서원은 책을 통해 부처님의 진리를 찾는 불자들의 고향이었다.

이규택 대표가 경서원을 설립해 맨 처음 펴낸 책은 지금은 절판돼 구할 수 없는 〈반야심경 강의〉(한길로 지음, 1965)였다. 또한 오경웅(John C.H.Woo)이 엮고 류시화가 번역한 〈선(禪)의 황금시대〉는 경서원의 대표적 베스트셀러다. 이 책은 1986년 초판 발행돼 2005년 재간행되며 10만부의 판매고를 올렸다.

경서원은 대중적인 서적보다는 일본·인도·티벳 불교 서적 번역 분야에서부터 학술서적을 주로 출판해 왔다. 2008년 본지와와의 인터뷰에서 이규택 대표는 "불교를 업그레이드 시키려면 불자 지식인들을 많이 키워야겠다 싶어서 학술 서적을 많이 만들어냈다"고 밝힌 바 있다.

이규택 대표는 또 생전에 "조용하게 책방과 출판사를 지켜가겠다"고 말했다. 불교 출판 활성화를 위해 출판 그의 구슬땀은 이제 머느리 김현희씨가 이어간다. 이 대표는 2007년 말부터 머느리 김현희씨에게 경서원의 업무를 전수해 왔다.

이규택 대표의 타계 소식에 이 전해지면서 불교계는 애도의 뜻을 전하고 있다. 불교인권위원회는 2월 6일 이 대표에게 조의를 표하며 "이규택 대표의 출판 정신을 기리고 그 공로를 계승,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윤창화 민족사 대표는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던 분이였다. 본받아야 할 모범적인 분이었는데,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박기범 기자

“학번·취미·지역 모임별 소모임 활성화”

창립 53주년 맞은 서울대 총불교학생회 이희세 회장

“소모임 그룹을 활용해 53주년을 맞은 서울대총불교학생회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대총불교학생회동문회장으로 선출된 이희세 회장(55·사범대 국어교육과 76학번)은 이 같이 신년계획의 포부를 밝혔다.

서울대총불교학생회동문회(이하 총불) 1958년 법대 불교학생회로 출발해 초기 한국청년불교의 발전에 있어서 커다란 공헌을 했다. 1960년대 총불은 한국 대학생 불교연합회를 조직하여 출범시켰으며 1970년대에는 불교계에서는 최초로 민주화운동을 주도했다. 동시에 학교 내에서는 1990년대까지 중앙동아리에 속하는 유일한 불교학생회로서 서울대내 불자학생들이 단합하고 결속할 수 있게끔 기여했다.



현재 총불은 상 반 기 에 는 재학생과 체육대회를, 하 반 기 에 는 재학생 후배들과 창립제에 참가를 하며 연말에 송년회행사를 하고 있다. 또한 격월로 1회씩 독서모임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비정기적으로 사찰 방문모임을 가지며 동문 간의 결속을 다지고 있다.

여기에 이희세 회장은 각종 소그룹모임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 회장은 “학번·취미·지역별 소그룹모임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활동의 주안점을 두려고 한다”며 “이를 위해서

총불 회원들의 연락망을 업데이트 하고 홈페이지(www.seoulbuddha.net/)를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총불은 재학생들에게 장학금과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후배를 양성하고 재학생들과의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이 회장은 “매년 여름·겨울방학 수련대회와 기타 활동 경비를 지원하고 창립50주년을 맞은 해인 2008년부터 단과대학별로 활동 중인 불교학생회 회장들에게 동문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총불은 지난 2008년 창립 50주년 기념으로 서울대총불교학생회동문회 관악센터 건립을 선포했다. 이 회장은 자신의 임기동안 발전기금 3억원 적립을 완수하고 싶다는 뜻도 밝혔다. 이나은 기자

제9회 유심작품상 수상자 발표



강은교



홍영희



김일연

제9회 2011 유심작품상 시부문에 강은교 씨의 '희명' 시조부문에 김일연 씨의 '묵매(墨梅)' 평론부문에 홍영희 씨의 평론집 〈통일시대와 북한문학〉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부문 수상자인 강은교 씨는 1945년 출생으로 43년째 활동하고 있는 중진 시인이다. 연세대 영문과 및 동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졸업하고 현재 동아대 문예창작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시조부문 수상자인 김일연 씨는 1955년 출생으로 1980년 〈시조문학〉으로 등단했다.

평론부문 수상자인 홍영희 씨는 1966년 출생, 경희대 국어국문학과 대학원 석·박사, 1995년 중앙일보로 등단했다.

이상식은 2011년 8월 만해추천 기간 중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진행되며 수상자에게는 각 1000만원의 상금이 전달된다. 이상언 기자

한국 불교 예술 대학 학 인 모 집

“한국불교예술대학”에서 아래와 같이 제9기 학인을 모집합니다.

- **범패·소리과정** : 기본 불공의식, 사십구재, 천도제 작법에 필요한 소리 및 사물 (태징, 목탁, 북, 요령) 다루는법. (1년과정 - 매주 화요일) 사십구재·천도제·장엄 및 제사 준비등 전과정
- **작법·무용과정** : 나비춤 - 사방요신, 다계작법, 도량계작법 (1년과정 - 매주 목요일) 바라춤 - 요잡바라, 관용계바라,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강 사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10-나호 범패·작법무 보유자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15호 인천수륙재 보유자
일 초 스 님

- **개강일시** : 2011년 3월 15일 (화요일) 오후 3시
- **모집인원** : 00명 (FAX 접수가능) ※ 본인 연락처 및 인적사항 필히 기재
- **매주 강의 요일** : 화요일, 목요일 - 오후 3시 ~ 5시
- **접수기간** : 2011년 2월 ~ 2011년 3월 10일까지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중과 교육원으로서 전통의식을 여법하게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성적우수자는 심사를 통해 무형문화재 전수생으로 선정합니다. (수료증 포함)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10-나호 범패·나비춤 보존회 ·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15호 인천수륙재 보존회

부 설 한국 불 교 예 술 대 학

주 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 6동 611-10호 인해빌딩 (전철 1호선 부평역 하차 남부역으로 나와서 동소정사거리 부평6동 우체국 옆)
전 화 : 032)529-6708 FAX : 032)529-6709
홈페이지 : 본 대학 http://www.bumpae.org / 삼계종 http://www.samgyeojong.org